

죽음을 정복하는 삶

손 승 원 (본회 울산지부장
울산호스피스선교회 이사장, 울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삶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되고 느끼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삶의 철학은 삶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삶에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만약 인간이 동물이거나 혹은 천사라면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천사의 종합적 존재이기에 불안을 가진 존재라고 했다.

그는 실존의 태도를 셋으로 구분하였으니 첫째, 미적 실존은 향락을 삶의 본질과 목적으로 가지므로 우수와 불안의 연속적인 결단성을 갖게 되며 둘째, 윤리적 실존은 선을 추구하는 삶을 가지나 원하는 바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됨으로 여기에서 인간은 삶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고 셋째, 종교적 실존은 신과의 합일을 구하는 생활태도로서 삶에 대한 불안과 죄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이기에 삶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 극복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존재의 용기를 얻게 되는 데에 있다.

필자는 40여년 전 위병으로 오랫동안 깊은 병상에 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의 힘을 빌렸지만 점점 병은 악화되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세주의자들의 철학적인 수필과 사상 전집을 읽기 시작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는 가운데 인생은 고독이라는 강을 건너는 단독자인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 외로이 서 있는 노송나무의 한 마리의 새 같은 존재인 것을 느끼기도 했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행복이요 자살하는 것이 둘째 행복이라고도 생각했으나, 나는 유년 주일학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에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죽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더욱 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몇 권의 책과 성경책을 가지고 깊은 산을 향하게 되었다. 청송약수터에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드리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탄산수 샘에 내려와서 사이다와 같은 물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 기도가 계속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한번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열 컵쯤을 입으

로 퍼 넣었다.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차라리 탄산수를 퍼 마시고 배가 터져서 하루속히 삶의 문제가 끝나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왜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십니까?”라는 것이었다. 병든 자에게는 죽음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속히 저에게 죽음의 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 소리 지르며 땀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며 약수터를 내려오니 약수터에 서있던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기도 했다.

나는 계속 배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마셨다.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어느 날 성서를 읽는 가운데 욥기(욥1:20~22)를 읽게 되었다. 나는 욥기를 읽는 가운데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못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끝없는 절망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을 맞게 되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되었을 때에도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혼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제목은 변화되어 손을 아픈 상처에 얹고 “주여,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이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픔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건강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하고 기도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통하여 찬송의 소리가 산골짜기를 넘어갔다. 욥기19장을 읽는 가운데 “내가 알기에 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신앙의 고백문은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신앙의 고백문이었다. 욥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함이다”하는 신앙의 고백문을 사도 바울 같이 나도 드리기로 결심했다.

또한 욥기 42장을 읽는 가운데 욥의 노년에 복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어 7남3녀의 자녀를 얻게 되고 재산은 배를 갖게 되며 욥이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어 “내가 전에는 귀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라고 승리의 찬송을 부른 욥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2주간 동안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어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신학이라는 문을 열게 되었다. 필자가 병상에서 철학 서적을 읽게 되어 대학과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 같이 나도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욕과 같이 고난의 삶이 주어질 때 시인 괴테의 ‘삶이란’시에서 그가 고백한 것 같이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마오 운명의 폭풍을 꾸준히 견디면서 나침반처럼 의무에만 살고 투쟁의 모든 날이 지난 후에 역사 위에 찬란하게 그대의 면류관이 빛나리라”고 고백한 것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삶의 철학을 가져야만 하겠다. 철인 칸트가 철학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에게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서에서 삶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배워야 될 것이다.

필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 실존의 삶의 철학이 없었더라면 이미 지구에서 흠이 되어 이 땅에서 보지 못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음이 마음 속 깊이 느껴져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낸다.

오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싸우는데 있다. 내일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생

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선의 삶의 철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어느 시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철학을 가진 자에게 죽음에 이른 병,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호스피스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은 1974년도 미국 시카고 메코믹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병원 심방을 갔을 때 호스피스 회원들이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호스피스와 같은 단체를 통하여서 병원선교를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1년 반이런 긴 시간을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호스피스 회원들이 천사의 얼굴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긴 세월이 흘러 갔지만 울산에도 호스피스라는 단체를 통하여 병원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산호스피스 2대 이사장으로 또 지부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이다.

기도하면서 호스피스 회원들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울산을 복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호스피스 회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